

# 譬 喻 論

朴 沆 植\*

細分하지 않은 詞藻(文章修飾方法)만 치더라도 約 50種이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譬喩요, 둘째에 誇張이라고 생각한다.

文章修飾의 여러 方法 가운데 古來로 가장 많이 씌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이 譬喩이다. 李鍾麟 著『文章體法』의 文章總則 七, 取喩法을 보면 ‘易은 以象而盡其意하고 詩는 以比而達其情이니 文之作也에 可無喩乎아 取喩之法이 有十……云云’이라 되어 있다. 이것은 詩傳은 比喩로써 그 情을 達하게 되니 글을 쓰는 데 있어서 比喩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글 뿐만이 아니라 演說을 듣고도 그렇다고 무릎을 치는 경우에 있어서 그 大多數가 巧妙한 譬喩에 逢着했기 때문인 것을 想起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巧妙한 譬喩는 언제나 讀者나 聽者를 끄는 魅力이 있는 것으로서 亂用을 피하면 큰 效果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效果의 根源은 適合의 快感과 發見의 快感이라는 心的活動의 範圍擴張에서 오는 것이다.

東洋의 修辭論者 中에는 活喩, 提喩, 換喩 等等 <喩>字 붙은 修辭法을 많이 썼으나 그러나 字義에 徹한 純然한 譬喩는 亦是 直喩, 隱喩, 諷喩의 三式이 될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直喩法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 원광대학교 교수

12修飾 約 50의 詞藻(詞姿, 詞態, 詞品, 詞妻 等으로도 말하는 Figures of Speech 의 譯이다.)를 다루어 보아도 그 代表的인 것은 <比喩>(Simile)와 <誇張>(Hyperbole)일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것은 마치 20世紀 藝術運動의 代表的인 二代潮流가 抽象主義(抽象藝術=Art Abstract)와 超現實主義(Sur-realism)인 것 과도 比肩할 만하다.

여기에서 至今 50의 詞藻 가운데 <比喩>와 <誇張>이 그 最高의 것이 된다는 根據는 우리 韓國의 詩歌는 말할 것도 없고 넌리는 佛敎의 모든 經典, 그리스 도敎의 聖經, 老子, 莊子, 神曲等 許多한 高次元의 글들이 都是 이 두 方法을 根據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사리 發見하게 된다는 데에서이다.

먼저 <比喩>에 對한 例를 하나 둘 들어 보기로 하겠다.

한 곳을 偶然히 바라보니 完연한 그림 속에 어떠한 -美人이 春興을 못이기 여 白玉 같은 고희 樣子半粉黛를 다스리고 皓齒丹脣 고은 얼굴 三色桃花未開峯이 하로밤 細雨中 반만 피인 形狀이라. 靑山 같은 두 눈썹은 八字春色 다스리고 黑雲 같은 검은 머리 반달 같은 臥龍梳로 활활 벗겨 전반 같이 넓게 땅아...  
...

백릉보선 두 발길로 소소굴러 높이 차니 爛漫한 桃花송이 狂風에 落葉처럼 (처럼) 綠樹溪邊 上下流에 아조 풀풀 흘날리니 衣裳은 漂渺하고 玉聲이 瑣瑣이라. 飛去飛來하는 양이 天上仙官 鸞鳥타고 玉京으로 向하는 듯 洛浦의 巫山神女 구름 타고 陽臺上에 나리는 듯 綠髮雲鬢 물리어서 珊瑚簪 옥비녀가 花叢中 에 번듯 빠져 꽃과 같이 떨어진다. (『春香傳』 京版本의 一部)

서울은 박(朴)을 몹시 쓸쓸하게 하였다. 자기 이름으로 있던 일원짜리 천여 장이 뽳뽳이 달아났다는 그것 보다도 그를 더 외롭게 하고 한스럽게 한 것은 그의 종던 안해의 죽음이었다. 빈민굴에 사는 덕으로 앞집에 들었던 장질부사에 내 짐사람을 가로채긴 것이니, 박(朴)은 그 후부터 그만 방울을 잃은 매처럼 어디가 앓든 소리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尙虛 『봄』의 一部, 『文藝讀本』 卷二. 桓山 李 允宰 編)

부처님은 또 남으로 내려가, <코삼비>의 <신사파> 숲에 들어가, 나뭇잎을 손에 쥐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저 숲의 나뭇잎과 이 손 안의 나뭇잎과는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부처님이시여,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저 숲 속의 나뭇잎이 몇 억배나 많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치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이 손 안의 나뭇잎처럼 적고 내가 알고도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은 저 숲속의 나뭇잎과도 같이 많다. 그러면 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말해봐도 아무 이익됨이 없기 때문이다. 즉 깨끗한 수행(修行)을 위하여 필요한 것도 아니요,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열며 깨달음을 얻어 <니르바아나>에 들어가는 데에 이익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법은 고·집·멸·도(苦·集·滅·道)의 네 가지 진리로서, 그것은 이익이 되고 깨끗한 수행(修行)에 필요하며,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열며 깨달음을 얻어 <니르바아나>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진리를 따라 힘써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八萬大藏經』의 阿舍經 第九節 生死와 부처님의 說法)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人子요, 밭은 世上이요, 좋은 씨는 天國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惡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秋收 때는 世上 끝이요, 秋收軍은 天使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루는 것 같이 世上 끝에도 그러하리라.

(『聖經』 新約 마태복음 제13장 38~40절)

활쏘는 이는 君子와 같은 點이 있으니, 正鵠을 잃고도 도리어 自己의 몸에서 求한다. 一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此章의 文句가 論語, 大戴禮, 孟子禮記, 易文言 等 諸篇에 記錄된 文句와 서로 類似한 點이 있다.)

子産이 尹何의 邑宰가 됨을 論하다.

鄭子皮 尹何로 하여금 邑宰를 시키고자 하거늘 子産이 듣고 말하였다. 『邑政을 맡길라하면 반드시 老成한 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尹何는 나이가 甚少하니 그 可함을 모르겠습니다.』

子皮가 말하되 『尹何が 비록 年少하지만 사람됨이 誠謹하니 내 甚히 사랑하

고 또 尹何는 이 뒤에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오. 젊음과 誠實을 안고 가서 배워 가면서 邑政을 해가면 閱歷을 쌓아 政治하는 道를 알게 아니겠오.」

子産이 또 反駁했다. 「당신이 尹何의 誠謹함만 믿고 가서 배워서 政治를 하면 可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오. 大抵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장차 安全하고 유익함이 있어서 나의 사랑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되 政治로써 하는구로. 마치 칼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끊고 베라고 하는 것과 같소. 그 다칠 것이 분명하오. 당신이 사람을 사랑한다는게 도리어 다치고 상하게 할 뿐이니 누가 당신에게 사랑을 구하려 하겠오. 당신은 鄭國에 있어서 棟梁과 같은 存在입니다. 棟이 부러지고 서까래가 무너지면 僑 나도 壓死할테니 어찌 말을 다하지 않겠오. 만일 당신이 美錦을 가졌다면 사람더러 배워 가면서 재단하라고는 아니 할 것이오. 大官과 大邑은 自身이 의지하여 사는 바인데 이제 배우는 사람으로 다스리라고 하니 당신은 大官大邑보다 하찮은 美錦을 爲하는 마음이 더 많다고 하겠오. 나는 듣건데 배운 뒤에 政治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이 옳지, 政治를 배워 가면서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오. 만일 당신 뜻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큰 害가 있을 것이오. 政治라는 것은 비유하면 사냥하는 것과 같아서 활을 쏘고 말을 타는 법이 익숙하면 능히 짐승을 얻고, 수레를 몰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사냥을 나가면 짐승은 커녕 失敗만 할 것이니, 놀리고 엿칠 것이 두려우므로 어느 겨를에 짐승 잡기를 생각하겠소.」

子皮가 깨닫고서 「옳소. 虎가 어리석었오이다. 내 듣건대 君子는 크고 먼 것을 알기에 힘쓰고, 小人은 작고 가까운 것을 알기에 힘쓴다 하니 나는 과연 小人이었오. 내 몸에 걸친 衣服은 챙겨서 소중히 하고 大官大邑은 내 몸을 庇護하는 重大한 것임에도 不顧하고 멀리하며 업신여기었도다. 子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큰일날 뻔했오이다. 日後에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오. 당신이 鄭나라를 다스리거든 나는 내 집이나 보호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오늘에야 나의 不足함을 알았오. 앞으로는 우리 집안의 일일지라도 당신의 말씀을 들어서 行할 것을 진정으로 願합니다.」

子産이 또 말한다.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음이 그 얼굴이 각각 다른 것과 같나니 내 어찌 당신의 얼굴이 내 얼굴과 같기를 바라겠오. 나는 다른 뜻이 아니라 마음에 不平不安한 것을 당신에게 말했을 따름입니다.」

子皮는 마침내 子産더러 忠國하는 사람이라 하여 國政을 委任하였다.  
子産이 이로써 鄭나라 政治를 잘 해갔다.

詞藻(文章修飾方法)의 代表的인 <比喻>가 舉例되었거니와 그러면 이 <比喻>라는 根本原理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依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第25圖表(R. G. 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

詩的 裝飾·比較를 爲하여 輸入된 補助觀念에 基礎된다.

比喻 繪畫的 比較

直喻=本格的 比喻

隱喻=隱蔽된 比喻. 그 妙味는 隱蔽度에 따른다. 直接的 隱喻 및  
比喻에 있어서 極段

特殊화된 比喻

擬人法=反擬人法(補助的 觀念은 언제나 人格)

寓話(補助的 觀念은 非人格)

움직이고 있는 比喻

自然의 劇的 背景

諷喻·思想의 暗示的 背景

象徴 慣例的 比較-이것은 다음 것에 基盤된다.

比較의 傳統的 標準

첫 神秘的 興味

수수께기(謎)와 수수께끼를 거는 象徴

劇에 있어서의 默劇(雄辯術의 제스처를 參照하라)

表象 豫言, 특히 에스겔書에 있어서의(聖句 및 說教를 參照하라.)

中世의 表象詩

幻과 꿈(밖으로 나타난 表象)

象徴이 慣例的 比較(元觀念을 우리들의 五官을 통해서 받아 들일 수 없다.)인데  
對해서 먼저 比喻는 繪畫的 比較이다. 그래서 補助觀念이 우리들의 視覺을 통  
해서 들어오는 것은 象徴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元觀念까지가 우리들의 視覺을

通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데에서 象徴과 區別된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리위 / 보리밭에 달 뜨면 / 애기 하나 먹고 /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徐廷柱詩集 『花蛇集』 가운데 「문둥이」)

이 詩에서 〈꽃처럼 붉은 울음〉의 比喩가 成立되느냐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原初의인 데에서는 比喩란 繪話의 比較이니까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똑같이 그림으로써 우리들의 視覺을 通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꽃같은 붉은 울음〉인 境遇에 있어서 〈울음〉이 〈눈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울음〉이면 視覺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소리를 내어 영영 우는 열집의 울음〉을 소리로만 듣고 있을 때 이것은 聽覺으로 들어올 수 있을 뿐이어서 繪畫의 比較가 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五官 가운데 最高 高等感覺은 〈視覺〉일시 분명하다. 順序로 봐서도 〈眼耳鼻舌身意〉(六識 가운데 意를 빼고-)의 最高位에 놓여 있고 또 헤시오도스(Hesiodos, B. C 8C頃)의 『神統記』(Theogonia, 1022行의 長詩)에서 퀴클롭스(Kyklops) 3兄弟가 다같이 이마 복판에 달구지 바퀴만한 눈알이 하나 달린 것으로 그려져 있는 시니컬한 장면만 보더라도 짐작이 가는 것이다. 우리들의 五官 가운데 神과 가장 가까운 것은 눈동자이다.

(『Greek and Roman Mythology』 康鳳植譯 參照)

鮮명한 感覺을 줄 수 있는 比喩란 애당초 〈繪畫의 比較〉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만 보면 〈꽃처럼 붉은 울음〉의 比喩가 成立되지 않거나 아니면 半成立의 位置에 놓여질 것이다. 그러나 比喩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基本的의요, 原初의인 範疇을 벗어나서 擴大되는 것임을 注目해야 할 것이요, 이 擴大되는 것에 따라서 〈꽃처럼 붉은 울음〉의 比喩가 成立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比喩가 成立이라는 것은 形而上學的으로 超越하는 瞬間의 變化를 意味한다.

애당초 比喩에는 아름답게 꾸미는 〈裝飾의인 比喩〉와 具體의인 image로 照明하는 〈照明의인 比喩〉가 있다. 말할 것도 없이 〈繪畫의인 比較〉라는 것은 〈裝飾의인 比喩〉요, 〈꽃처럼 붉은 울음〉이라는 것은 〈照明의인 比喩〉인 것이다. 그리하여 前者는 鮮명한 아름다움을 주고 後者는 恍惚한 아름다움을 주게 된다.

細密하게 再分된 모든 譬喩-野心的인 表에서 보면 約 250種이나 있다-를

두 서너 個의 範疇로 나누어 버리려는 여러가지 企圖가 있었다. 組織(Scheme)과 文彩(trope) 그 自體가 이러한 것 중의 하나다.

音的 比喩(sound figures)

感覺的 比喩(sense figures)

또 하나의 試圖는,

말의 譬喩(figures of speech)

思考의 譬喩(figures of thought)

이 再分法은 둘 다 그러나, 表現의 技能이 不足한 外面의인, 或은 가장 外面의인 構造를 暗示한다는 缺陷이 있다. 그러므로 傳統的인 體系下에서는 韻과 頭韻이 둘 다 發音上の <組織>, 聽覺上の 裝飾이다. 그러나 詩行의 머리와 끝에 있는 韻은 둘 다 感覺을 結合하는 것으로서 有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組織>을 無視해 버리고 다시 <文彩>를 基幹으로 해서 適切히 分類한다면, 隣接의 譬喩—傳統的인 隣接의 譬喩는 換喩와 提喩이다.

相似의 譬喩—『Theory of Literature』 René Wellk and Austin Warren. p.194.

위의 引用文 가운데 譬喩로서의 換喩와 提喩가 나왔는데 이것은 轉換法(Metonymy)을 換喩法, 揭部法(Synecdoche)을 提喩法(互換法, 代喩法)이라고 해서 學隅法을 分類하여 指稱하고 있으나 穩當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元來宋의 陳騷의 『文則』 가운데 <十喩喩>(直喩, 應喩, 類喩, 詰喩, 對喩, 博喩, 簡喩, 詳喩, 引喩, 虛喩)이 있었고, 여기에서 <喩>字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比喩>라는 것은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結合됨으로써 成立되는 것이 原則이므로 換喩, 提喩, 活喩, 引喩, 簡喩 등의 名稱은 適切한 것이 못된다.

아름든 細密하게 再分된 比喩 250種의 根據는 分類에서 오는 것이며 그 原理는 이렇하다.

比喩 中の 두 觀念은 性質, 形態, 體量 등이 類似하거나, 類推되거나 하는 경우에 이것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比喩된 對象(補助觀念)이 먼 것일수록 效果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元觀念과 距離가 먼 觀念을 選擇하는 일은 꿈과 詩에 共通되는 代價構成이기도 하다. 이 奧義는 <데에이즈망>(dépaysement), <오브제>(object, 『詩의 發生學』 趙鄉, 국어국문학회지 16號), <自動記述法>(『韓國戰後問題詩集』, 新丘文化社刊, Automatism), <自由聯想>(free association, 『現代心理

學』, R. S. Wordworth: Contemporary Scholas of Psychology, 이 진숙 옮김) 등의 方法論에 發達하게 되는 것이다. (以上『梁 柱東博士 古稀紀念論文集』〈現代詩에 있어서의 感覺에 對한 研究〉參照).

比喩란 실로 모든 詞藻의 으뜸이 된다. 가장 많이 씌어지고 가장 널리 包括된다. 이 가운데서도 直喩(Simile of Comparision)는 가장 明確한, 가장 初步的인 것으로서 ‘같이’ ‘처럼’ ‘인양’ ‘듯이’ ‘as’ ‘like’ 등의 말이 들어 있는 詩는 읽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만큼 使用하는 頻度數가 높다. 그리하여 이 方法이 두개의 事物을 比較함으로써 그 類似性을 表示하여 理解를 도운 것과 本旨 本文을 修飾하여 增義的 感興을 讀者에게 傳達하려는 것과의 두 方面에 巨한 效用性을 지니고 있다.

모든 文章修飾方法을 三段階로 區分하여 거기 精神次元을 設定하려는 것이 〈詩의 精神次元에 對한 研究〉(精神次元이 가장 높다고 보여진 世界 10大 詩人을 골라서 普通級, 特信級, 法魔相戰級, 法強降魔位, 出家位, 大覺如來位 등의 位置를 定하는 研究)의 副產物이었다. 이 比喩 三式에 있어서도 直喩(Simile)보다 隱喩(Metaphor)가 隱喩보다 諷喩(Allegory)가 그 精神次元이 높다고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直喩를 다시 三段階로 區分하여 그것이 現實的으로 어떠한 因果關係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活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直喩의 三段階 區分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한 單語인 채 連結語로 結合되는 直喩.

例: 말뚝같은 사나이. 딸기같은 코 버들같은 눈썹 等

B.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連結語에 의하여 具體的인 한 文章으로 되는 直喩

例: 떨리는 心臟같이 자지러지게 흔들리는 느티나무 잎새. 비둘기장같이 하이얀 療養院. 森林은 우리 속의 獅子와 같이 絶望의 갈기털을 흔들고 있었다.

C.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하나의 具體的인 映像이거나 아니면 한 聯으로 이루어지는 直喩

例: 들관의 농부들, 김서린 창 안의 아낙네들은  
불붙은 비행기가 푸른 하늘을 떠가는 것을 본다.  
마치 나무 꼭대기 위 멀리,  
널어 눈 빨랫가지 사이로



반딧불과 거미가 싸우기라도  
 하듯, 그들은 흥미를 가지고  
 저녁 뉴스를 기다린다.

(테드휴즈 Ted Hughes의 『慘變』 The Casualty의 1절)

그다지도 내가 지새이던 한밤내내,  
 가슴속 깊이 소용돌이 치던 두려움도,  
 이제사 조금은 가라앉았다.  
 마치 숨가빠하여 깊은 바다에서 언덕으로 헤어 나온 사람이,  
 아슬아슬한 물을 고개 돌려 바라보듯,  
 아직껏 살아오면서  
 한번도 通過한 사람이 없는  
 그 좁은 길을 다시 보려고  
 뒤돌아 선다.

(단테 알리기에리 Dante Alighieri의 『神曲』 Divina Comedia 第1曲 中에서)

以上에서 直喩의 三段階 區分을 하였다. 이것은 外形上의 區分이다. 그러면  
 서도 그 外形에 따라서 內在의 世界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곧 <A>보  
 다 <B>가, <B>보다 <C>가 더 精神次元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文學에서 살펴보면 古代小說 같은 데에서는 곧잘 <A>級의 直喩  
 만을 쓰고 있다. 이것은 詩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具體的인 狀況設  
 定을 하지 않고 그 때 그 場面만 보아서 單純히 直喩되고 말 뿐이다. 아니 이  
 것은 古代일 뿐 아니라 20世紀末 現在에 있어서도 아직 여기에 對한 考究가 없  
 는 形便이다. 이것은 어쩌면 西歐의 知的인 데 反하여 우리들의 直情이 作用되  
 었다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모든 우리나라 作家들의 새로운 着眼이 여기에 있  
 어야 하겠다.

이러한 見地에서 <C>의 直喩는 그 次元이 단연코 높다. 그 까닭은 앞에서  
 例示했지만 이 直喩를 펼 수 있는 元觀念(元義)과 補助觀念(喩義)이 다만 한 單  
 語 뿐인 孤立狀態가 아닌 채 比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C>의 直  
 喩가 그 場面을 支配하고도 남을 圓融한 雰圍氣를 물고 들어와 必然의 歸結로  
 서 行하여진데 對해 <A>의 直喩는 瞬間的이요, 直情的인 手法이 아닐 수 없다

는 것이다.

例컨대 한 債權者와 한 債務者가 단둘이서 不時的 場所에서 暮夜無知로 談判하는 것을 <A>의 直喩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首席代表가 代表와 수많은 隨行員을 데리고 國際會議의 定期에 出席하여 무르익은 議案으로써 同一 條件인 다른 나라 首席代表와 永久平和의 議論을 交換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단테의 『神曲』을 <C>의 直喩로 들고 있지만 『神曲』의 比喩는 이 詞藻를 長技로 삼고 있는 것을 到處에서 보아 看破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佛敎의 諸經典, 예수교의 聖經, 老子, 莊子, 春秋左氏傳과 같은 훌륭한 글들이 모두 이와 같은 좋은 方法에 依持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現代의 詩人들도 西歐에 있어서는 이러한 事實에 着眼하고 있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 될 일이다.

都是 20世紀 現代詩의 2大 테크닉은 隱喩와 象徵이다. 말할 것도 없이 둘 중에 하나를 輸入한다면 테크니컬 넘어움이 아니면 判定勝은 될 것이다. 그렇게 隱喩는 유력하다. 直喩보다도 隱喩가 그 次元이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隱喩가 對象과 이미지가 서로 不一致하면서도 한데 오버랩 됨으로써 經濟的 效果를 거두고 詩人의 心理狀態는 明確한 그리고 具體的인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치더라도 이 三段階의 <C> 次元인 直喩 以上の 것일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隱喩보다도 더 높은 精神次元을 領有할 수 있는 것이라고 明言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봐서 直喩보다 隱喩의 慧知가 더 빛나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것은 瞬間의 原理에 立脚해야 한다.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1899~1961)의 無技巧의 技巧가 今世紀의 하나의 小說手法일진대 所謂 hardboiled 文學의 所從來 또한 作家 便에서 미리 興奮하지 말고 自然(可視的인 自然이 아니라 恒久不變의 自然, ‘形象을 보지 말고 自然을 보라!’의 抽象美術의 原理는 可視的인 나왕 테이불은 千年미만에 썩지만 그 나왕 板子에 繡놓인 나왕 紋衣는 恒久不變의 것으로서 앞으로 나왕이 子子孫孫 代代로 이 무늬를 지니지 않고서는 나왕이 될 수가 없다는 自然을 말한다.) 그대로인 것을 냉정하게 傳授하는 것이 곧 眞理의 便이 된다는 斷定을 던지고 싶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陽性的인 直喩 즉 明喩가 오히려 隱喩 즉 暗喩이기에 앞서 自然의 攝理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前掲 比喩의 例 『봄』에서나 『阿含經』에서나 『聖經』에서나 모두 次元 높은 直

喩를 쓰고 있다.

〈방울을 잃은 매처럼〉은 그 뜻이 元義와 喩義를 넘어서서 박(朴)이라는 사람의 애처로운 情況이 오래오래 어필되어 온다. 그리고 『阿含經』에 있어서의 〈나뭇잎처럼〉이나 〈나뭇잎과도 같이〉는 그 뜻이 比喩되는 그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對話의 끝을 括束하는 經文의 前後에 넘치어 溢流堰의 比重을 지니도록 되는 것이다. 또한 『聖經』 마태복음의 〈사루는 것같이……〉도 가라지의 譬喩가 여기 이르러서 그 뜻을 크게 發揮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C〉次元の 直喩는 사뭇 높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새로운 事實을 發見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가라지의 譬喩이다.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人子, 世上, 天國의 아들들, 惡한 者의 아들들, 魔鬼, 世上의 끝, 天使들 등 일곱번 隱喩되고 있는 이 글에서 끝을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루는 것 같이 世上 끝에도 그러하리라.〉라고 直喩로 結果를 맺고 있다.

이것은 매우 重要的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隱喩(暗喩)보다는 直喩(明喩)가 뚜렷하고 大凡하고 公公然하고 톤(tone)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가라지의 譬喩에서 만일 여덟번 끝까지 隱喩를 썼더라면 끝내는 이 글의 끝을 이와 같이 印象의으로 統率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인 無難한 글로 되어 돌아갔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의 『修辭學』(Rhetoric) 第三卷 韻律(rhysm=rhythm)에 보면 短短短長(〇〇〇——)은 結尾에 쓰인다고 되어 있다. (民族文化論叢:『鸞山李殷相博士古稀紀念論文集』, 斷叙法攷, 1973)

想考하면 이 原理가 곧 가라지의 譬喩의 妙諦인 것을 알게 된다.

앞으로 詩歌나 文章修辭에 있어서 『聖經』의 明理가 指標가 된다는 것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요, 佛敎의 經典을 비롯하여 眞理가 담겨 있는 代表的인 典籍의 修辭에 對한 穿鑿이 꾸준히 繼續되어야 할 것은 勿論이다.

하나 더 여기에서 補充하고 싶은 것은 比喩에 對한 東西洋의 差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端的으로 말해서 東洋의 比喩가 情的인데 反해서 西洋의 比喩가 知的이라는 事實이다. 이것은 하필 比喩 뿐만이 아니라 到處에서 그 사실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니 自然觀이나 思考方式이나 심지어는 詩歌에 있어서의 色彩感覺까지라도 그러한 特質을 抽出할 수가 있다. 아뭏든 比喩를 보면 東洋의 것은 春香傳에서 든 例에서도 特徵되고 그렇게 西洋의 것은 다음에

그 예를 가져와 보기로 하겠다. (樹州 卞 榮魯의 詩 『저녁놀 빛』과 Walter De La Mare의 詩 『Silver』를 보면 앞의 것은 물감이 속까지 스며 드는데 뒤의 것은 접테기에서 번쩍거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東洋의 情에 깊은 것과 西洋의 知에 번쩍이는 것을 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hot as the devil', 'cool as a cucumber', 'independent as a pig on ice', 'lazy as a dog', 'crazy as a bat' and so on.

(Brooks & Warren: 『Modern Rhetoric』 Chapter 12. Metaphor)

워렌(Robert Penn Warren)은 위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형편없이 남아빠져서 진열만 된 채 팔리지 않는 누추한 상품처럼, 그러나 아직 은유들로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무진장하게 많다.〉라고—

勿論 앞에 前提가 있고 또 뒤의 說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대목만 보더라도 뉴크리티시즘의 翻將의 한 사람으로서의 허풍이 꽤 들어 있다. 지나치게 새로운 척하는 代替되지 않고 不便이 없이 無難하게 現在 岌어지고 있는 말은 그것을 낡았다고도 새롭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위의 比喩는 〈형편없이 남아빠진 것〉도 아니요, 〈누추한 것〉도 아니다. 俗談이나 格言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어서 낡은 것이 아니듯이— 오히려 新鮮한 感覺과 빛나는 智慧와 낚임스(한 빛깔에 있어서의 明暗의 差異)가 있는 것이다.

〈오이처럼 시원하다.〉는 新鮮하고 〈얼음관의 돼지가 되었다.〉는 危險狀態를 比喩하는 말로서의 智慧가 들어 있기 때문에 웃긴다. 그리고 〈박쥐처럼 흥분했다.〉는 낚임스가 있다. 이 比喩의 밝은 뜻은 박쥐가 객객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것을 말하고, 속에 숨어 있는 어두운 뜻은 臟 몸뚱아리(특히 주둥아리) 속에 들어 있는 빨간 口腔과 軟口蓋의 後段의 中央에 突出하고 있는 圓筒形의 懸壘垂를 말한다. 이 比喩는 마치 장·꼭또(Jean Cocteau, 1889~1963)의 웃기는 詩 〈黑奴美人〉을 聯想시키고 있는 知的인 것이 아닐 수 없다.

1920年 4月 Dada 展覽會에 Marcel Duchamp는 陶製便器를 〈噴水〉라는 題目으로 出品했다. 이 既成의 Object를 〈噴水〉라고 題한 곳에 Dada的 諷刺가 있다고들 評하고 있었지만 좀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사람(나)의 손으로 眞理(Idea)를 그릴 수도 彫刻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연이기는 하지만 남이 만든 既成品 속에 眞理 具現의 契機가 있음 직하기도 하다. 物自體는 說明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比喩〉가 登場하게 된다.

東西를 莫論하고 譬喻는 莫重한 것이다. 낯은 것도 아니요 頑固한 것도 아니다. 初草의인 理解方法도 되고 至高한 眞理傳授의 方便도 된다. 奧義를 말하기 위하여 『聖經』을 引用하기로 하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로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마태복음 13장 10~17절, 마르코복음 4장 10~12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譬喻로 말씀하시고 譬喻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하시었으니 이는 先知者로 말씀하신 바(이사야 6장 9절)

내가 입을 열어 譬喻로 말하고 創世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마태복음 13장 34~35절)

却說, 直喻를 쓰는데 있어서 陳腐를 避하고 嶄新해야 한다든지, 적절 온당해야 한다든지, 類似性을 쉽게 발견하도록 卑近해야 한다든지, 賤俗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平凡한 戒律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鄉歌 以後로 아니 말과 더불어 오랜 手法이 되어 있는 이 直喻는 許多한 우리 古代 詩歌(信忠의 『怨歌』를 好例로 하여 洪迪의 時調 『어제 오던 눈이』와 『春香傳(直喻法은 地文에 가장 많이 쓰이고, 對話, 辭說, 사랑가, 長嘆歌에서도 많이 使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5, 公州教育大 論文集 第二輯 『完板本 春香傳의 修辭法考察』, 金 基平)을 비롯한 小說과 現代에 이르러서도 張 萬榮의 『女人』, 金 起林의 『山羊』, 朴 木月의 『나그네』, 筆者의 『담배』 등의 短詩에서 그 特色을 드러내고 있다.

詩인이 제 나라 말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새로운 比喻의 발명이라는 측면에서이다. 希臘에서는 호머가 비유의 큰 원천이었고, 근세 영어에서는 셰익스피어야말로 그 나라의 말의 비유의 一大 수원지였던 것이다.

(金 起林, 『文章論新講』, p.181)

<資料>

怨 歌

信 忠

물빛 자이 2 술 안들 이우러 더매  
너 엇데 니저 이신 올월던 느치 겨샤온터  
동그림제 넷 모섯 널 룡결 애와티듯  
중아 브라나 누리도 아쳐론 데여

어제 오든 눈이

洪 迪

어제 오든 눈이 沙堤에도 오돏든가  
눈이 모래갸고 모래도 눈이로다  
아마도 世上 일이야 다 이런가 호노라

담 배

朴 沈 植

사랑을 당해 내기야 하겠읍니까  
허지만 없고 보면  
사랑처럼 그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 한 農夫의 告白에서 -